

살아있는 교육현장을 약속하는 아주

< 목 차 >

제8대 이호영 총장 취임사

포커스
GAD6b백질,
당뇨병 주요 유발인자로 밝혀져

선인재 칼럼
집중치료실 개설 5주년을 맞으며

의학리포트1
수정란이 착상되는
인공자궁 초기기술 개발

의학리포트2
소아정신질환,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

월봉사 하늘은 지붕, 땅은 방

연구 나의테마
3, I Like the Liver

월 단신

월말 흥부외과

고통과 최고의 기쁨이 공존하는 곳

의사
의 다짐만 잊지 않는다면

나선식 CT

24시
의 거거리를 책임집니다

중, 피하조직 절제법으로 완치가능

병원 어떻습니까
행운의 시작은 다음과 같이
행했습니다

월레이 에세이 따뜻한 마음

건강 Q & A

와래진료 시간표

병원의 이모저모
아주대병원의 달라진 모습들



아주대학교 제8대 총장 취임식이 있는 자리.
 신임 이호영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아주대학교의 정체성을 물었다.
 아주의 얼과 문화와 학풍이 무엇인지,
 아주의 정신과 색깔은 어떤 것인지 물음표를 던졌다.
 전임 총장의 질풍같은 개혁의 바람이
 무한경쟁의 대학 살아남기에서 아주를 강건히 살렸듯이
 신임 총장은 그 바람을 이어 받아
 대학문화를 창출하고 이끌어가는,
 한국사회를 리드해가는,
 세계속에 굳건히 자리잡는 아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참 리더가 배출되도록
 학생, 교직원 모두에게 살아있는 교육현장을 구현하며
 가슴으로 소중한 많은 이의 소리를 품겠다는 이호영 신임 총장.
 우리 모두 돋보기로 빛을 모으듯 역량을 결집해주길 당부하는 자리였다.

▲총장 취임식에는 윤원석 이사장, 이석희 대우재단 명예이사장, 김현남 아주대학 초대학장, 김병수 연세대학교 총장 등 내외빈 400여명이 참석했다(사진).

